



1, 2, 3 인천 송도 워터프런트 1-1단계 전경

“한국의 베네치아, 해양친수도시 첫걸음” 인천 송도 워터프런트 1-1단계 완료...보도교·공원 등 설치

인천의 꿈을 향한 송도 워터프런트 그 첫 번째 단계 사업이 준공되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이 해양 친수도시로 태어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7월 유정복 인천시장과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도 워터프런트 1-1단계 사업 준공식을 진행했다. 지난 2019년 4월 착공, 3년 3개월 만에 준공된 1-1단계 사업은 총 790억 원이 투입됐다. 바다와 6공구 유수지를 연결하는 수로 930m와 수문 1곳, 보도교 2곳, 공원 4곳, 자전거도로 등이 조성됐다. 더불어 수변 테크-물놀이시설대포 분수 등을 갖춘 친수공간도 설치됐다.

워터프런트 사업은 송도국제도시의 수로와 유수지 21.2km를 바다와 '모'자 형태로 연결해 조위차를 이용한 해수의 순환 체계를 구축해 수질을 개선하고, 집중 호우 시 유수지 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조성된 수로와 호수를 활용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해양 생태도시를 건설하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단계별로 추진 중이다. 송도 6공구 유수지와 아암 유수지를 연결하는 워터프런트 1~2단계 사업은 내년 초 착공한다. 인천신항 배후단지와 송도 시가지 사이에 조성되는 워터프런트 2단계(5.73km) 사업은 올해 타당성 조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 절차를 마치고 개발계획 변경과 설계용역을 거쳐 2025년 착공해 2027년 준공 예정이다.

송도 워터프런트는 전체 길이 21.17km·폭 40~500m 규모로 총사업비 6천215억 원이 투입된다. 전체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 앞바다와 같은 2~3등급 수질의 바닷물이 송도 시가지지를 약 15일간 순환하게 된다. 평상시 관리 수위를 평균 해수면 1m로 유지하다가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계획 홍수위 3.5m까지 1천만의 담수 능력을 확보해 침수 피해를 예방하게 된다. 인천경제청은 워터프런트에 마린과 수상 레포츠 시설도 유치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해양생태 도시를 조성,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글로벌 도시로서의 품격과 가치를 상승시킬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워터프런트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송도국제도시의 가치를 높이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해양 친수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



2



3

IFEZ, Global Business Frontier

탄탄한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IFEZ

ifez 인천경제자유구역
Incheon Free Economic Zone

INNOVATIVE GROWING CITY

